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요단강을 건널 때 II (여호수아 3:1~ 5:12)

이종윤 원로목사

요단 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대로 길가에 기념비도 세웠고 할례를 행했으며 유월절도 지켰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접근하려는 순간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자기 앞을 가로막았다.

여호수아는 그가 누구인지 처음엔 알지 못했다. 다만 누구를 위한 평범한 한 일꾼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여호와와의 군대 장관이라 했다. 여호수아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하명해 달라고 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I.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분은 누구인가?

여호수아가 단순한 인간에게라면 어떻게 땅에 엎드려 절하고(예배하고) 그의 명령을 기다릴 수 있을까? 그는 이스라엘의 사령관이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린 것은 그가 힘이 센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본 것이다.

1.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셨음을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3:8).

2.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아브라함은 세 명의 길손을 만났다

어떤 학자들은 세 명의 길손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셋 중 둘은 소돔으로 가서 롯을 구했으니 그들은 천사였고 그 세 번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성육신(preincarnation)이라고 한다. 그 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분인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잠막 문에 앉아 있다가”(창18:1).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창18: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

라함에게 숨기겠느냐”(창18:17).

이와 같은 말씀들은 베들레헬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인간의 모습을 수차례 보여 주신 것에서 볼 수 있다.(성령강림 이전에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이 임하셨듯이).

3. 압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한 상대가 누구인가?

창세기 32장 2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 그는 ‘천사’라고 불렀다. 야곱을 굴복시키고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다. 그가 받은 새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다, 그가 받은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는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자’라는 뜻이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모양을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II. 하나님의 군대란?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가 있음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분은 유대인 군대를 지휘하러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의 사령관 된 여호수아는 여리고 작전 명령을 하달해 달라고 그 앞에 엎드린 것이다. 그 내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앞으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할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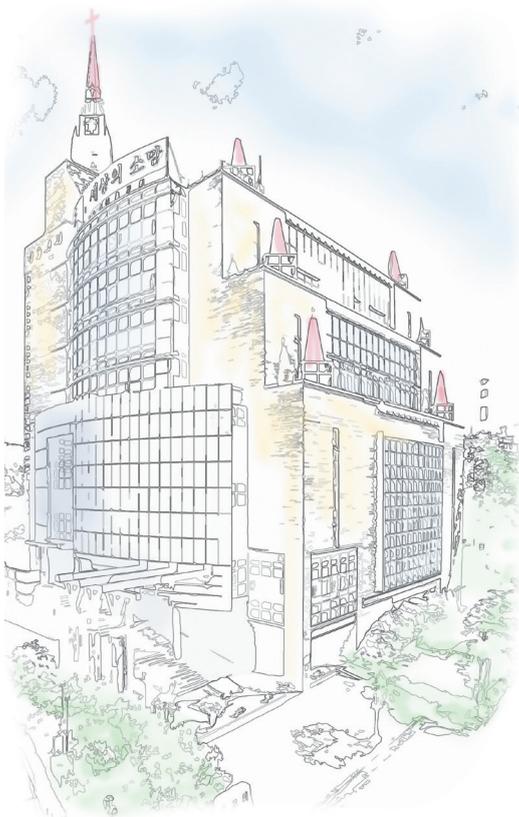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성경에서 아주 다른 의미로 쓰였다. 즉 ‘천사들의 군대’를 말한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 즉 천사의 군대 사령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1. 창세기 32장 1-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창32:1-2).

이는 주 진영(two camps)이라는 뜻이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사자들(천사들)이다. 이들은 야곱을 격려하러 왔다. 두 진영이라는 말은 야곱의 지상 진영과 천군들의 더 큰 진영을 말한다.

(다음 주 계속)



이종윤 원로목사 · 노송성 은퇴장로 혐의 없음 처분

- 아가페타운 구입에 관한 건 -

①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정 2017. 형제111934호
② 고소인 성명	최태순 외 4명
피의자 (피고인)	③ 성명 이종윤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죄명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⑥ 처분 검사	황대훈
⑦ 처분 년월일	2018. 5. 17.
⑧ 처분 요지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⑨ 불기소 이유	별지 참조

①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정 2017. 형제111934호
② 고소인 성명	최태순 외 4명
피의자 (피고인)	③ 성명 노송성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죄명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⑥ 처분 검사	황대훈
⑦ 처분 년월일	2018. 5. 17.
⑧ 처분 요지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
⑨ 불기소 이유	별지 참조

VI. 의견

○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각 혐의 없다.

VII. 참고사항

○ 고소인은, 동일한 사실로 오OO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2017. 12. 7. 오OO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고소인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1. 30. 항고를 각하하였다.

중략

○ 한편 고소인은, 위 오OO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한 증거는 없다고 한다(제1-3권 제583쪽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은 지난 5월 18일(금), 최 0순 외 4인이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노송성 은퇴장로를 아가페타운 매입에 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아가페타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시세보다 높은 액수로 구입하여 교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오정수 장로를 상대로 고소하였던 배임건이 이미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있다.(순례자 1306호, 순례자 1361호 참조)

이러한 무혐의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후 박노철 목사측에서는 다시 사람만을 바꾸어 원로목사와 당시 재정위원장이던 노송성 장로를 상대로 똑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난 2018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특이한 것은 위 사건 조사 당시 박노철 목사측 고소인들은 앞서 오정수 장로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다른 새로운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인 바, 결국 이들은 조

금만 기다리면 깜짝 놀랄만한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계속 주장한 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결과까지 확인되었다.

박노철 목사측은 2016년 이전부터 교회재정비리의 유언비어가 SNS, BAND 등을 통해 날포하였고, 이 유언비어는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아직도 『서울교회부패청산평신도협의회』를 만들어 마치 서울교회에 재정비리가 있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측에서 재정비리라고 주장하며 진행한 고소가 지금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교회 분쟁은 '박노철 목사의 목회자로서의 자질 문제와 빚나간 리더십, 그리고 자신의 안일을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도구 삼은 것'으로 인해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질을 흐리기 위해 실제도 없는 서울교회 재정비리를 이슈화 하였고,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곧 놀랄만한 사실이 밝혀진다는 등의 거짓으로 성도들을 계속적으로 호도하고 있다.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5월27일	주일	느 7:73-9:38		눅 3-6	
5월28일	월	느 10-11		눅 7-9	
5월29일	화	느 12-13		눅 10-12	
5월30일	수	에 1-5		눅 13-17	
5월31일	목	에 6-10		눅 18-21	
6월1일	금	욘 1-5		눅 22-24	
6월2일	토	욘 6-8		요 1-4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정준혜 감우균/김연화1 김동건/신소영 진돈/김경희
정복순 이흥숙 김도연 무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한국기독교 학술원 제52회 학술 공개 세미나 『3.1 운동과 한국 교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
5월 28일(월) 오후 2시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원로목사)은 오는 5월 28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3.1운동과 한국교회』 라는 주제로 제52회 학술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상규 박사, 김권정 박사가 강사로, 박명수 박사, 연규홍 박사가 논찬으로 선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란다.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새벽 5시 30분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 119:148)



 2018 흥해작전을 준비하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혼란이 시작되고 어느덧 3년여가 흘러 갑니다. 그동안 많은 교우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폭력현장에서도 가장 저급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용역이 교회에 등장하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토록 높이 세워진 교회의 위상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오히려 지역 사회에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고, 이미 은퇴하신 원로목사님에게도 가혹하리 만큼 큰 시련을 겪게 하시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 사탄은 그 영향이 크면 클수록

좋을 것이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탄과 싸워서 승리 하실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실 것임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더욱 성숙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미 통합이든 합동이든 교계를 둘러보아도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여 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교계에는 공의로운 믿음의 리더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법적 정의도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공의롭고 성숙된 믿음의 진실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라 생각합니

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총회도 사회법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승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뜨거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갈 때에 만이 승리가 담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의 흥해작전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교회의 흥해뿐만 아니라 민족의 복음화된 평화통일을 위한 나라의 중요한 흥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제에 개인과 가정을 위한 흥해도 이번 기회에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합시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기회를 승리로 장식합시다.

흥해작전 참모장 오지열 장로

 나의 하나님

서울교회는 원래대로 회복되어야 한다



▲ 고흐 『석양에 씨 뿌리는 사람』 1888. 네덜란드

이용성 집사 (11교구)

위의 그림에서 석양이 지는 밀밭에 두 마리의 까마귀가 날고 있고 농부는 씨를 뿌리고 있다. 밝은 태양은 빛과 에너지의 영원한 근원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은 한 편의 시다. 시를 읽듯 그림을 보면 그림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의미가 담긴 이 그림에서 땅에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상징한다.

서울교회는 1991년에 설립된 장로교회다. 개혁주의 신앙인 칼빈주의(Calvinism)를 신앙의 이념으로 삼고 부흥한 교회다. 교계의 원로인 이종운 목사에게 의해 설립되어 오직 성경과 믿음 등 '다섯 솔라(Five Solas)'를 기치로 내걸고 한국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특히, 서울교회가 도입한 목사 및 장로의 안식년제는 보수적인 기독교 사회에서 기독교를 타파하는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교회의 안식년제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한번 임명되면 정년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6년 시무 후 1년 안식한 다음 반드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러한 안식년제는 목사는 물론 장로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무사안일주의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의 의미가 있다. 안식년이란 더 좋은 목회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6년 시무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평가일 수도 있기에 나태해진

교역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기에 많은 교회가 선뜻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꺼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혁적인 서울교회는 이 제도를 초기에 과감히 도입했다. 그리고 그동안 잘 시행되어 왔기에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

그러한 서울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 서울교회 갈등의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 이종운 목사 퇴임 후 2대 후임 목사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 부임 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안식년 제도를 자신의 차례가 되자 전면 부인했다. 목회자로서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었고, 도덕성 문제가 생기므로 재신임의 관문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갈등은 안정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까? 궁극적으로 서울교회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갈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받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개혁을 이끄는 선두의 위치에 서야 한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자라야 한다. 성실과 정직은 진정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워야 할 성전이 목회자의 도덕성과 정직성, 그리고 성실성과 신뢰의 문제로 큰 혼란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은 진정 슬픈 일이다.

고독과 더불어 정신병의 고통에 시달린 고흐는 1889년 5월, 생레미 의 생폴 드 모졸 요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6월 18일경 새벽, 요양원 1층 스튜디오의 동쪽 창문을 통해 바라본 동트기 전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고흐는 창가에 기대어 생각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나에게 항상 꿈을 갖게 한다. 나 자신에게 묻는다. 지도에 작은 점으로 표시된 프랑스 지역에 가듯이 왜 별들에게는 갈 수 없는 것일까. 우리가 기차를 타고 타라스공이나 루앙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별들에게 갈 수 있을까." 별은 외롭고 고독했던 고흐가 자신의 가슴속에 간직한 이상의 세계였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고흐는 결국 27세의 늦은 나이로 화가의 길을 택했다. 그리고 1890년 7월, 고흐는 10년 동안 수많은 작품을 남기고 37세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



▲ 고흐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가 있는 구교회』 1884. 네덜란드

했다.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서 그는 기존의 어두운 색채의 그림에서 벗어나 밝은색을 사용함으로써 예술 세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무엇보다 고흐는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사랑이 많았던 화가였다. 그의 그림이 당시에는 거의 팔리지 않았지만, 고흐는 언젠가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한 믿음이 그를 더욱 그림에 몰두하게 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보듯, 고흐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시를 그렇게 그림으로 그렸다.

고흐의 인생과 그림을 생각하며 심한 갈등에 휩싸인 서울교회를 생각한다. 고흐는 농부가 씨를 뿌리며 사는 것처럼 자신도 부지런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우며 한때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자였다.

신앙생활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서울교회의 갈등은 어서 빨리 끝나야 한다. 서울교회가 이미 채택하여 아름다운 전통으로 정착한 안식년제는 서울교회의 목사와 장로라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믿음 아래에 바로 선 자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아집을 버려야 한다. 그리하여 상처로 얼룩진 서울교회는 원래의 개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빨리 원상 복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갖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의 철없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하여 똑바로 서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전 성도 성경읽기에 동참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용어의 이해 2

김동진 집사 (3교구)

2) 아, 요와 야

아, 요와 야는 여호와와 축약형으로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고 주로 단어의 앞이나 끝에 붙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할렐루야' 라고 하면 야 즉 여호와를 찬양하다 이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흔히들 구약시대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이 너무 거룩하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여 여호와 대신 별칭인 '전능한 주' 라는 뜻을 지닌 '아도나이' 란 단어를 사용하여 차츰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져 오늘날 여호와 또는 야훼 등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은 모두 원본이 아니고 필사본이거나 필사본의 필사본 또는 그 이상의 필사본들인데 필사본을 쓸 때 필자가 쓰다가 단어가 틀리면 틀린 글자를 고쳐서 계속 써 내려갔는데 여호와라는 단어의 철자가 틀리면 이름이 너무 거룩하여 고치지 못하고 아예 다른 양피지에 처음부터 다시 써 내려 갔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여호와라는 거룩한 이름의 축약형인 아나야가 일상적인 지명이나 인명에 흔히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여호와란 이름을 무조건 거룩하게 여겨 멀리하거나 사용을 극히 자제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할 때나 예배

등 경건을 요하는 경우에 무겁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엘, 여호, 아, 요 그리고 야가 사용된 용어들 이제 위의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된 주요 예들을 정리하기로 하자.

- (1) 엘
 - ① 인명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야곱의 개명된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장,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천사장,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심' 아브라함의 후처인 하갈의 아들로 아랍 민족의 시조이자 이슬람교의 조상, **사무엘**: '하나님께 구함' 구약시대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선지자로 하나님 명령에 따라 다윗에 기름부음을 행함, **엘가나**: '하나님에 의해 얻어진 자' 한나의 남편이자 사무엘의 아버지, **엘리**: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대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의 스승,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구약시대 최고의 비기록 선지자로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 명과 겨루어 이김,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야의 제자 선지자, **엘리사벳**: '하나님은 나의 맹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아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요시아 왕의 첫째 아들로 유다 왕위에 오름, **요엘**: '여호와와 그의 하나님이다' 선지자로 요엘서 기록,

에스겔: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대선지서 기록 선지자.

- ② 지명 **벤엘**: '하나님의 집' **엘 벤엘**: '벤엘의 하나님' 야곱이 벤엘에 세운 제단에 붙인 이름, **엘 엘로헤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나안에 무사히 도착한 후 세겜 근처에 세운 제단의 이름 (창세기 33: 20),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으신다'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을 구분하는 계곡,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예언적 표현으로 사용 (이사야 29: 1-2) **여루엘**: '하나님에 의해 기초됨' 엔게디와 드고아 사이에 있는 평야, **옥드엘**: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예돔의 수도였던 셀라를 점령한 후 옥드엘이라 불렀다 (왕하 14: 7)

- ③ 기타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 '나의 하나님,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외치신 말로 흔히 가상칠언(架上七言) 가운데 네 번째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태 27: 46)
 -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돌지 아니하시으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사편 22: 1) (다음 주 계속)

동정



■ 연주회 : 4교구 백경화 권사(가브리엘 찬양대 지휘자, 당진시립 예술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제 52회 당진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Concert a Theme D'amour』 사랑의 테마 콘서트 5월 31일(목) 오후 7시 30분 후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관람을 원하는 성도는 가브리엘 찬양대에 문의 바랍니다.



■ 독창회 : 15교구 신모란 집사(할렐루야 찬양대, 시온찬양대) 6월 22일(금) 오후 8시 금호아트홀

■ 선임: 3교구 김형상 집사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한국회계기준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선임 되다.

■ 금주의 식사 : 김치 볶음밥
임선철 집사 이영주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2. 흥해작전을 잘 준비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놓인 흥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2018 흥해작전이 되게 하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